

# 더욱 풍요로운 삶을 위해

## 2019 예산안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성실한 사람들 그리고 번성한 경제를 갖춘 경이로운 주입니다. 하지만 풍요로운 경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질 때 진정한 의미가 있으며, 사람들에게 현재의 기회를 열어주는 동시에 미래의 과제를

해결하는 동력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BC 주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의료, 교육 및 아동보육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은 BC 자녀양육보조금(B.C. Child Opportunity Benefit) 신설, BC 주 학자금 대출 이자 및 MSP 보험료 전액 삭감, 그리고 BC 주 사상 최대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주민들을 위한 환급 혜택을 제공하고 모두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데 활용됩니다.

또한 CleanBC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저탄소경제를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조성하고 BC 주의 대기과 토지 그리고 수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투입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원주민과 진솔하고 지속적인 화해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퍼스트 네이션즈(First Nations)와의 역사적인 25년 수입 공유 계약을 통해 퍼스트 네이션즈(First Nations)에 소속된 지역사회를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안정적인 장기적인 자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BC 주는 2019 예산안을 통해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투자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국민뿐 아니라 이후 세대들에게도 이로운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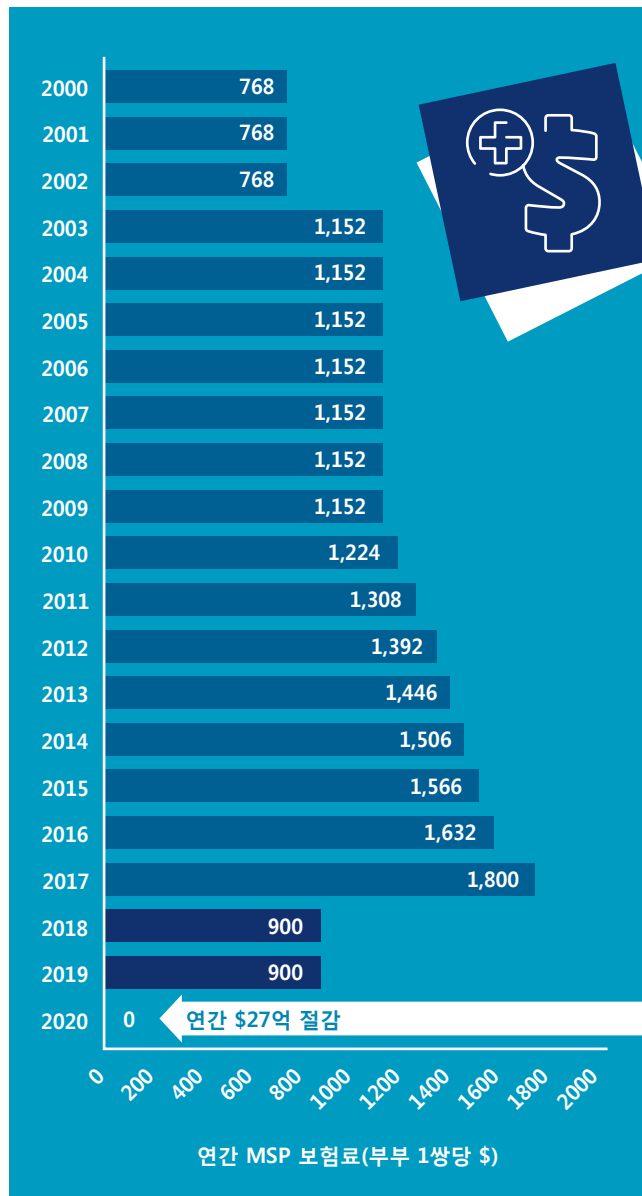
재무장관 겸 부주수장  
캐롤 제임스(CAROLE JAMES)

# 더욱 윤택한 삶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

BC 주는 주민 중심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민과 가족의 생활비 절감을 위해 노력합니다.

지난해 BC 주는 메디컬 서비스 플랜(MSP) 보험료를 50% 인하하며 BC 주 사상 최대의 세금 감면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인당 \$450, 가구당 \$900의 환급 혜택이 제공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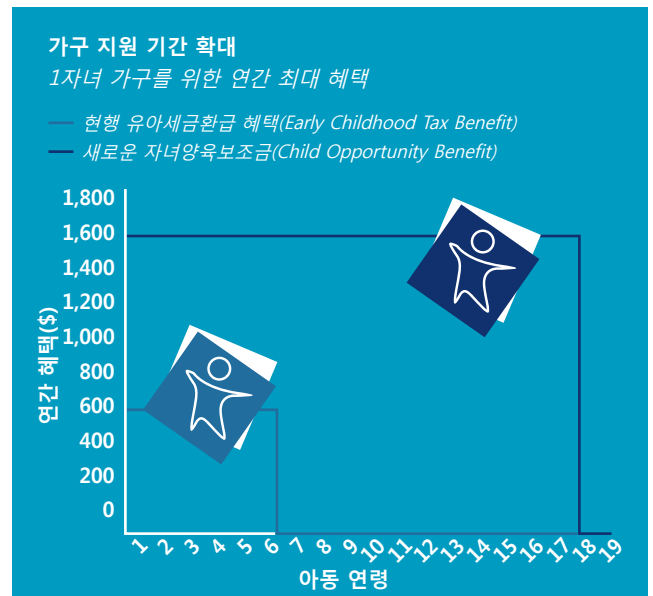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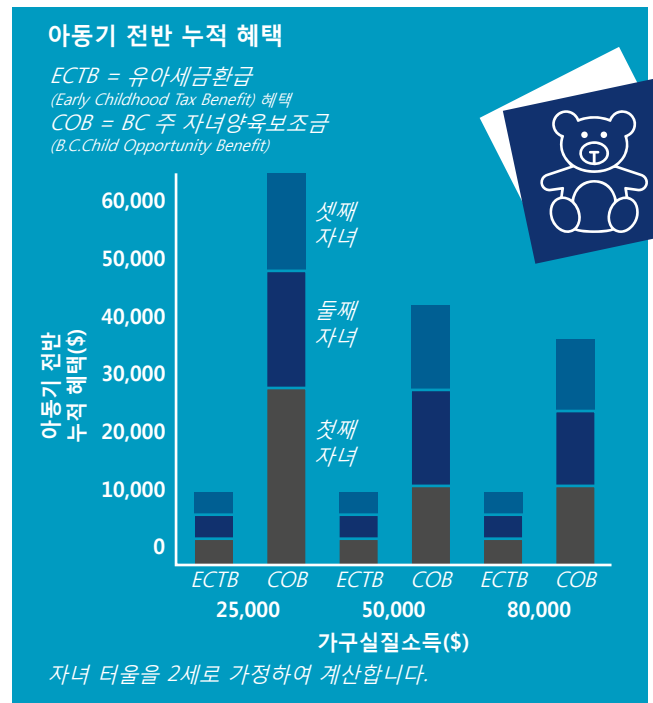
2019 예산안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로 MSP 보험료 전액 삭감을 통해 가구당 연간 \$1,800가 절감되었습니다.



## BC 주 자녀양육보조금 (B.C.CHILD OPPORTUNITY BENEFIT)

BC 주의 모든 아동에게  
발전을 위한 환경이 주어져야 합니다.

2019 예산안에 새로운 BC 주 자녀양육보조금 (B.C.Child Opportunity Benefit)을 도입하여 중산층 가구에 더 많은 환급 혜택을 제공합니다. 유아세금환급 (Early Childhood Tax Benefit) 혜택을 대체하는 이 제도를 통해 기존 대비 수혜 기간이 3배 연장되고 지원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1자녀 가구에겐 연간 최대 \$1,600, 2자녀 가구에겐 연간 최대 \$2,600, 3자녀 가구에겐 연간 최대 \$3,400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 BC 주만의 보육 계획

BC 주는 아동을 돌보고 가족의 삶을 향상하기 위해 보육 부문에서 BC 주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향후 3년간 주 정부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손쉽게 접근 가능한 양질의 아동보육을 위해 \$13억 이상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 » 인허가 취득 보육 기관 52,000개의 보육비를 월 최대 \$350(연간 최대 \$4,200) 인하
- » 연간 소득이 \$111,000 이하인 모든 가구에 자녀 1명당 연간 최대 \$15,000의 혜택을 제공하는 어포더블 차일드 케어 베네핏(Affordable Child Care Benefit) 도입
- » 3년간 \$2억3,700만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허가 취득 보육 기관 22,000개 추가 설립

**BC 주의 자녀양육보조금(B.C.CHILD OPPORTUNITY BENEFIT), 어포더블 차일드 케어 베네핏(AFFORDABLE CHILD CARE BENEFIT) 및 인허가 보육시설 보육비 인하로 인해 1자녀 가구에 연간 최대 \$20,000 및 2자녀 가구에 연간 최대 \$28,000의 환급 혜택이 제공됩니다.**

## 양육자 지원



2019 예산안에서는 보살핌 대상 아동과 장애인 등 BC 주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보살핌의 불공평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살핌과 양육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더 나은 삶을 위해 도움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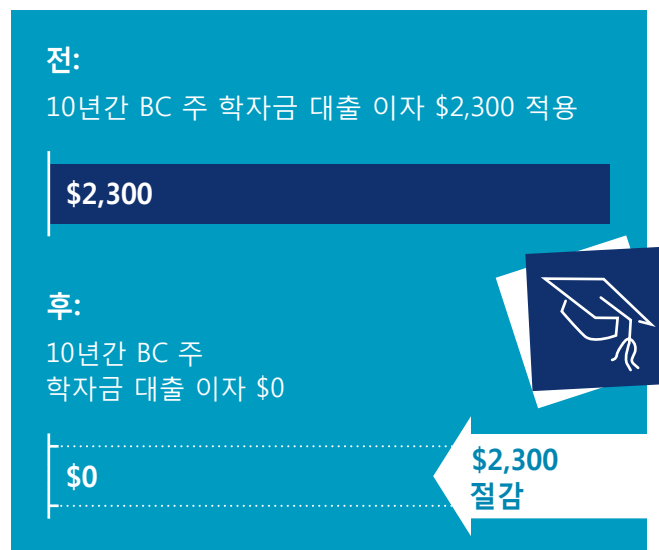
- » 2009년 이후 최초로 BC 주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공유자의 보상액이 인상됩니다.
- » 2019년 4월 1일부터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 내 양육자를 위한 지원금이 10년만에 월 \$179 인상됩니다.
- » 조부모나 부모의 형제자매 등 보육기관 대신 아동을 돌보는 확대가족을 위한 지원금 또한 양부모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 BC 주 학자금 대출 이자 철폐

BC 주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생들은 과도한 빚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은 미래에 대한 부담이 아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과 신혼 가족이 새로운 삶과 직장을 활기 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현재로 부터 학자금 대출을 보유한 모든 주민을 포함하여 BC 주 학자금 대출 이자가 2019년 2월 19일 부터는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 대출이 \$11,200 있거나 연방 대출과 주정부 대출을 합쳐 \$28,000의 대출을 보유한 사람은 10년간의 상환 기간 동안 BC 주 학자금 대출 이자를 \$2,300 절감하게 됩니다.



##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보조금 인상


이번 정부 출범 후 최초로 시행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소득 및 장애인 보조금 인상이었습니다. 이로써 10년만에 유의미한 수준의 보조금 인상을 통해 취약계층이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2019 예산안에서는 소득 및 장애인 보조금이 월 \$50 인상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BC 주는 월 \$150(연간 \$1,800) 규모의 보조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 B.C. 주택 현황 보고서

월급만으로 빠듯하게 생활하는 경우 차량 고장 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가족의 보금자리를 잃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BC 주의 지역 7곳에서 재정 문제로 인해 주택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저소득 세입자에게 저금리 또는 무이자로 단기 대출을 제공하는 대출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C 주 전역에서 불필요한 강제 퇴거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단기 대출이 필요한 세입자를 지원하는 대출기관에 정부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합리적인 가격의 신규 주택 건설 및 시장 조정


B.C. 주택은 10년 동안 합리적인 가격의 신규 주택을 114,000채 건축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1년차에 다음을 비롯한 17,000채의 주택이 건축되었거나 건축 중입니다.

- » 다양한 소득 계층을 위한 합리적인 가격의 임대주택 4,900채
- » 신규 조립식 주택 2,000채 이상
- » 폭력과 학대를 피해 가출한 여성과 아동을 위한 임시보호주택 280채
- » 대학생 전용 주택 2,295채
- » 보호 구역 내외에 거주하는 원주민을 위한 공공주택 1,750채

지난해 주 정부는 BC 주의 주택시장을 조정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단행하고 브리티시컬럼비아의 주민들이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 » 주택 가격 상승을 야기하는 투기자와 공실 주택에 대한 세금 부과
- » 외국인 구매자의 세율을 20%로 인상 및 밴쿠버 도심 외 지역까지 확대 적용



그 결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개월간 밴쿠버 광역 지역의 단독주택, 아파트와 전원주택의 기준가격은 각각 8.3%, 6.6% 및 6.2% 하락했습니다.

## 세입자 보호 강화

Homes For B.C.는 다음을 통해 세입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 » 임대 지원 프로그램(Rental Assistance Program)에 근거하여 저소득 근로가구의 보조금을 연간 평균 \$800 인상
- » 임대료 인상률을 물가인상률 이하로 제한하여 월 \$1,200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올해 \$288 절감 효과
- » 고정기간 임대의 허점 보완 및 지역 임대료 인상 조항 삭제
- »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한 조립식 주택 지역 세입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강화
- » 주택 리모델링이나 철거로 인해 주거 위협을 받는 주민을 위한 보호 강화




또한 SAFER (고령세입자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노인 보호를 위해 독거노인 보조금도 연간 \$930 인상되었습니다.

# 가족을 위한 복지 향상

## 병원 및 1차 응급의료기관

2019 예산안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총원 및 환자의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3년 동안 총 \$13억 이상의 보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 » 주 정부는 오늘과 미래 세대의 의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테라스, 도슨 크릭부터 노스 밴쿠버까지 BC주 전역에서 병원을 설립, 리모델링 및 확장
- » BC 암 연구소 지원금 확충을 통해 암 관련 수술 횟수 및 영상진단 증대, PET 및 CT 스캔 확대, 증가한 화학 요법 수요 충족
- » 여성, 아동, 신생아와 가족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BC 주의 아동전문병원과 여성전문병원 지원




2018년 이래 BC 주는 매주 800시간 이상의 MRI 운영 시간을 추가했으며, 올해에는 주 전역에서 지난해 대비 MRI 검사를 37,000회 이상 늘릴 예정입니다.

## 페어 파마케어(FAIR PHARMACARE)


올해 1월부터 페어 파마케어(Fair Pharmacare) 프로그램에 \$1억 5백만을 투입하여 BC 주 24만 가구 이상의 처방의약품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로 연간 실질소득이 \$45,000 이하인 가구의 경우 \$300~\$450의 세금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처방의약품이 절실한 사람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4천2백만의 추가 지출을 통해 폐동맥고혈압, 당뇨, 천식과 는 감염 치료제를 비롯, 선택 가능한 의약품의 종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정신보건



2019 예산안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보건서비스 접근 개선을 위해 \$7천 4백만이 편성되었습니다.

- » 12~24세 청년을 위한 Foundry 센터를 확충하여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실현
- » 학교, 부모 및 가족을 위한 아동 초기발달 지원 프로그램 확충
- » 가족 특화 서비스 및 청년층을 위한 주간 치료 확대를 통해 수요 충족

## 교육

2019 예산안에서는 \$27억을 투입하여 향후 3년 동안 다음을 비롯한 K-12 시설 유지, 대체, 리모델링 및 확대 조치를 실시합니다.

- » Burnaby North 고등학교 신축(내진 설계)
- » 노스 밴쿠버 Mountainside 고등학교 내진성 개선
- » 버클리 밸리의 Walnut Park 초등학교를 대체하는 학교 설립
- » 포트 세인트 존에 Northeast 초등학교 신설
- » 수크 학구의 Royal Bay 고등학교 확장
- » 칠리악 South Side Area 초중등학교 신축
- » 센트럴 오키나간에 Lake Country Jr 고등학교 신설
- » 서리의 Sullivan Heights 고등학교 확장

BC 주 전역에 5,500개의 학생 전용 공간을 신축하여 학생들을 이동식 공간에서 교실로 이동시키고, 학교 운동장을 새롭게 공사하거나 개선했습니다.

2019 예산안에는 4,000명 이상의 신규 교원을 채용하는 내용의 교실 개선 기금(Classroom Enhancement Fund)에 대한 \$5천8백만의 투자를 비롯하여 공공교육시스템 지원금이 \$5억5천만 이상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 주민에게 이로운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에 투자

## CLEANBC

2019 예산안에서는 3년에 걸쳐 CleanBC 이니셔티브에 \$9억2백만의 신규 자금을 편성하여 기후 협약을 준수하고 깨끗한 대기, 토지 및 수원을 보호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BC 주민들이 더욱 간편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개선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4천1백만을 투자합니다.

BC 주는 리모델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주택용 클린 에너지 장비를 지원합니다. 관련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화석연료(기름, 프로판 가스,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난방시스템을 전기 펌프 열 펌프로 대체하는 비용 \$2,000 지원
- » 단열 개선을 위한 창문 및 문 리모델링 비용 최대 \$1,000 지원
- » 고효율 천연가스 난로 비용 최대 \$700 지원

주 정부는 BC 주의 무공해 자동차 가격을 더욱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수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공해 자동차 구매 시 \$6,000의 비용이 절감되며, 추가로 연간 약 \$1,500의 가스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19 예산안을 통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기후 조치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성인과 아동의 연간 최대 후 조치 세금 공제액이 14% 인상됩니다. 즉, 저소득층 및 중산층 4인 가족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 » 2019년 7월 1일부터 최대 \$400,
- » 2021년 7월 1일부터 최대 \$500의 크레딧 수령



무공해 자동차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해당 차량의 사용이 더욱 용이해지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비해야 합니다.

- » 신규 공공 급속 충전소 및 수소 충전소 설립 비용 \$2천만 편성
- » 자동차 기술자 및 전기기술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클린에너지 차량 부문 지원금 \$6백만 편성



CleanBC를 통해 주 전역에서 탄소 배출량을 대폭 낮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숙련된 기술자의 이동을 촉진하고, 기후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방법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정부는 올해 외진 지역에 위치한 공동체를 위해 클린 에너지 전환보조금 \$1천5백만을 편성했습니다.

## 산불 대응

BC 주는 2018년 예산안에 산불 발생 후 탄력성과 회복을 위한 지역 사회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7천2백만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19 예산안에는 3년에 걸쳐 산불 방지와 대응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1억1천1백만의 추가 자금이 편성되었으며, 병해 및 산불 피해를 입은 삼림 복원 비용 \$1천3백만도 포함되었습니다.

## 지역사회 연결

BC 주 전역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도로, 병원, 학교 등 기반 시설에 \$200억 이상을 투자하여 건설 기간 동안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교통 수요를 충족하고 인구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을 비롯한 교통 사업에 \$66억을 투자합니다.

- » Pattullo 다리 교체
- » Broadway 지하철 건설
- » Kicking Horse 캐니언을 관통하는 4차선 규모의 1번 고속도로 건설
- » Sicamous의 Bruhn 다리 교체

\$2천1백만을 추가로 투자하여 주 전역의 30개 지역에서 BC 주 교통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대중교통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지속적이고 진실된 화해

원주민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모든 BC 주민에게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 수입 공유

2019 예산안의 일환으로 퍼스트 네이션스(First Nations)는 자치, 문화 부양과 가족의 삶을 향상하는 서비스에 투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금 출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25년간 퍼스트 네이션스(First Nations) 소속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30억의 지역 수입을 공유할 예정이며, 그 시작으로 다음 3년 동안 \$3억을 공유하게 됩니다.

지역사회의 화합과 화해를 위한 이 역사적인 협약은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다음의 사업을 확대하고 발전 시킨 것입니다.

- 

환경영향평가 절차 현대화
- 

에드 존 추장의 조언에 따라 원주민 아동이 보육기관 외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10년간 \$5억 5천만을 지원하여 보호 구역 내외에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 1,750호 건설
- 

First People's Cultural Council과 First Nations 지역사회 사업에 \$5천만을 지원하여 토착어 재활성화
- 

BC 주의 모든 아동에게 원주민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는 새로운 K-12 학사과정 편성

# 재정 관리 책임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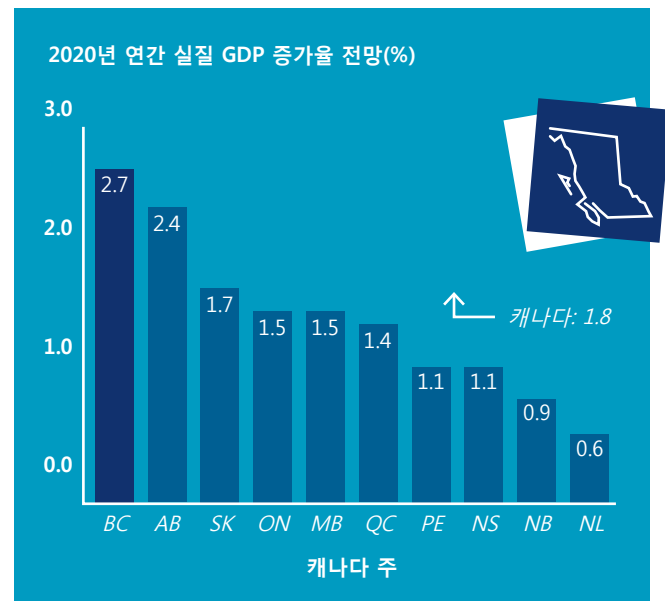
주 정부는 향후 3년 동안 재정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2억7천4백만(2019~2020년), \$2억8천7백만(2020~2021년), \$5억8천5백만(2021~2022년)의 흑자 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 정부는 모든 주요 국제 신용평가기관에서 AAA 신용등급으로 평가한 유일한 주이며,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신중한 재정 관리를 통해 2018~2019년 회계년도 2분기에 40년만에 BC 주의 운영 부채를 모두 상환했습니다.

## 캐나다의 경제 리더로 우뚝 선 BC 주

BC 주의 경제는 안정적이며, 2019년과 2020년에 국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BC 주는 캐나다 전국을 통틀어 최고의 GDP 실질증가율 예측치, 최저의 실업률과 최고의 임금상승률을 보이는 등 경제가 가장 탄탄한 지역입니다. 지난해 BC 주의 임금 상승률은 4.1%로 캐나다 전역에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10년간의 B.C. 임금상승률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BC 주의 실업률은 2019년 1월 기준 4.7%로, 17개월 연속 캐나다 전국에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의 고용률 상승은 지난해 64,8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 민간 부문 채용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 더욱 풍요로운 삶을 위한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정책

2019 예산안은 가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주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여 대대적인 프로그램 투자를 통해 가구 소득을 환급하고 절세 혜택을 통해 서민 및 중산층 가족의 삶을 향상합니다.

밴쿠버 도심에 거주하는 연간 소득 \$70,000의 4인 가구는 다음을 통해 연간 \$26,675 및 1회성으로 \$8,000의 절세 혜택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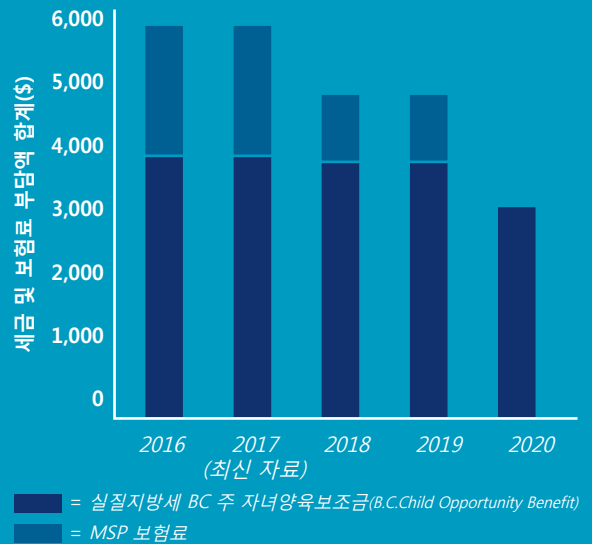
- » MSP 전액 면제 — 연간 최대 \$1,800
- » 학자금 대출 이자 철폐 — \$10,000의 지역 대출을 보유한 개인의 경우 졸업 후 연간 \$200 가량의 이자 절감
- » BC 주 자녀양육보조금(B.C.Child Opportunity Benefit) — 연간 최대 \$1,380
- » 어포더블 차일드 케어 베네핏 (Affordable Child Care Benefit) — 연간 최대 \$14,895
- » 보육비 인하 프로그램 — 연간 최대 \$5,400
- » Port Mann 및 Golden Ears 통행료 폐지 — 연간 \$1,500
- » 전기자동차 할인 혜택 — 전기자동차 구입 시 최대 \$6,000 및 충전 비용 \$1,500 가량
- » 열 펌프 감면 혜택 —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난방시스템 교체 시 최대 \$2,000

## 2020년까지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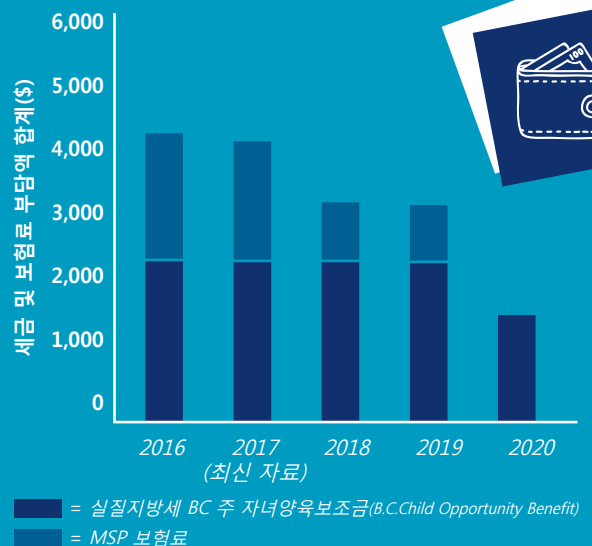
- » \$26,675의 연간 절세 및
- » \$8,000의 1회성 절세 혜택 제공



2020년 연간 소득이 \$80,000인 4인 가구는  
약 \$2,400의 세금 감면 혜택 수혜



2020년 연간 소득이 \$60,000인 4인 가구는  
약 \$2,500의 세금 감면 혜택 수혜



## 참고 자료

2019 예산안 상세 내역: [www.bcbudget.ca](http://www.bcbudget.ca)

재무부: [www.gov.bc.ca/fin](http://www.gov.bc.ca/fin)



본 문서는 친환경 무염소 표백 제지에 인쇄되었고 재활용 섬유를 포함하며 100% 재활용 가능합니다. 본 문서는 자원 보존을 위한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함께 자원 절약, 재사용 및 재활용에 동참합시다.

